

호랑이 '뒷심 DNA'로 끝까지 간다

지난 LG전 5-6 뒤지던 경기 9회 끝내기 홈런으로 역전

패색 짙어도 "이긴다" 자신감...윤석민 가세로 뒷문 단단

호랑이 본능을 깨운 KIA 타이거즈가 '끝까지 간다'.

KIA는 매년 우승후보이자 4강 후보팀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올 시즌은 하위팀 후보로 조용히 시즌을 준비했다.

구단에서도 리빌딩의 해를 선언할 정도로 전력의 빈틈이 많았다. 해결되지 않은 마무리 고민 속 허약한 불펜, 김선빈과 안치홍의 동반 임대 등 2015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적었다.

그러나 투경을 열어본 KIA의 2015시즌에는 깜짝 전력이 숨어있었다. 객관적인 전력 외의 전력, '뒷심'이 있다.

지난 29일 LG와의 경기가 끝난 뒤 역전 끝내기 포의 주인공 필은 덕아웃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팀의 전력으로 꼽았다.

필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다. 예전에는 이닝이 끝나고 나면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달라졌다. 지고 있었지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극적인 뒤집기 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날 KIA는 3회 타진 필의 역전 홈런에 힘입어 4-2로 앞서고 있던 6회, 나지완의 불안한 수비와 불펜의 난조가 겹치면서 대거 4실점을 하며 재역전을 허용했다.

한껏 끌어올랐던 분위기가 가라앉은 데다 9회 마무리 봉준근까지 나오면서 LG로 경기가 기울어 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장편지 근육통으로 선발라인업에서 제외됐던 김주찬이 침착하게 볼넷을 골라내며 역전 투런의 발판을 만들었다.

마운드에서도 박준표가 6회 승계 주자의 득점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7회를 무실점으로 막은 뒤, 7회말 최희섭의 솔로포로 1점차의 추격이 이뤄지면서 심동섭·최영필이 투입될 수 있었다.

공·수에서 선수들이 집중력 있는 승부를 하며 마지막 기회를 만들었다. 덕아웃에 불고 있는 '끝까지 간다'는 분위기가 만든 승리였다.

시달시달한 덕아웃 분위기는 지난 스프링캠프에서부터 눈에 띄었다. KIA는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9전 전패를 기록했지만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나올 때까지 덕아웃은 응원소리로 요란했다.

'윤석민'이라는 전력 외 전력의 가세도 이런 분위기에 힘을 실어줬다.

김기태 감독은 지난 마무리캠프에서부터 준비해온 전력으로 마운드 밑그림을 그린 뒤 윤석민을 뒤로 배치하는 수를 썼다.

윤석민이 차분하게 적응을 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과 장기적으로 풀어나갈 필요성과 마무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전력이다.

무엇보다 윤석민으로 뒷심이 강화됐다. 실전 감각이 떨어지면서 아직 완벽한 컨디션은 아니지만 윤석민이 주는 위압감은 상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끝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이 더해진 것이다.

전력 외 전력으로 힘을 보태 하위권 후보 '호랑이 군단'이 9회까지 또 시즌 마지막까지 달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대세는 '메시'

CIES 최고 공격수 1위...호날두 29위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올해 1분기 최고의 활약을 펼친 공격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맛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를 밀쳐 감지 제쳤다.

지난 31일(한국시간) 국제스포츠연구센터(CIES) 축구연구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5년 1분기(1~3월) 포지션별 우수 선수 순위'에 따르면 메시는 공격수 부문에서 당당히 1위에 올랐다.

올시즌 초반 주춤하는가 싶었던 메시는 해가 바뀌자 정규리그에서만 17골을 폭발하며 다시금 짐가를 드러내고 있다.

그의 팀 동료 루이스 수아레스와 네이마르 역시 4위와 12위에 랭크됐다. 그만큼 바르셀로나 공격진의 파괴력이 컸다는 의미다.

2위는 분데스리가에서 변함없는 활약을 이어가는 아리언 로벤(바이에른 뮌헨)이 꼽혔고 아우구스투 부르크의 고공행진을 이끄는 바스 도스트(볼프스부르크)가 3위에 올랐다.

메시의 라이벌인 호날두는 저 아래 29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정규리그 한 경기당 평균 1.78골을 터뜨리며 국제축구연맹(FIFA)-발롱도르를 거머쥔 그는 2015년이 되자 6골에 그쳤다. /연합뉴스

광주 FC 유소년 축구교실

오늘 영광초 방문 첫 스타트

K리그 클래식의 광주 FC가 업그레이드된 희망 축구교실로 지역 유소년팬들을 찾는다.

광주 FC가 1일 오전 11시 서구 광전동 영광초등학교에서 2015시즌 첫 희망축구교실을 연다.

광주 선수단 4명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프리스타일 풋볼공연, 미니축구게임, 질의응답, 경품 이벤트, 점심식사, 사인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단 소개 및 경기일정, 선수단 등이 소개된 수첩과 황송촌 명명 교환권 등의 선물이 증정한다.

올해 희망축구교실은 단순한 체육활동에서 벗어나 재능기부와 진로탐색 등 교육활동과 병행해 40회 진행된다. 특히 꿈 나눔의 날을 별도 지정해, 연간 15차례 운영하는 등 프로그램을 한층 더 강화했다.

지난 2년간 지속 운영되면서 희망축구교실에 대한 인기는 높아졌다. 80개의 학교가 참가를 희망하면서 2대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2013년에는 16개교 900여명, 2014년에는 38개교 1500여명이 희망축구교실에 참가했다. 방학기간에는 새날학교, 무등육아원, 고통정보산업고 등에서 희망축구교실이 열렸다.

광주 FC 정원주 대표이사(중흥건설 사장)는 "올해로 5년차를 맞은 광주지만 축구광주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희망축구교실 등 사회공헌과 지역밀착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시즌 승강플레이오프를 거쳐 승격에 성공한 광주는 3라운드 현재 2승1무의 성적으로 2위에 오르는 등 K리그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팔 좀 치워줄래?"

미국프로농구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이시아 가나안(왼쪽)이 지난 31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자바리 브라운을 피해 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빠른 공·수 전환으로 러시아 돌파"

여자 축구대표팀, 5·8일 평가전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을 두 달여 앞둔 태극낭자들이 국내에서 마지막 실전 무대를 준비한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이 지난 31일 오후 파주NFC(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 소집됐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8위인 한국은 오는 5일(인천축구전용경기장)과 8일(대전월드컵경기장) 러시아와 두 차례 평가전을 벌인다.

6월 개막하는 여자 월드컵 전 국내에서 치르는 마지막 평가전이다. 이달 중순 키프로스컵에서 아쉬운 성적을 남겼기에 한국은 러시아전에서 반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필승을 다짐할 터다. 한국은 친선대회인 키프로스컵에서 조별리그 3전 전패를 당한 끝에 12개 출전국 가운데 11위로 마감했다.

여기에 지소연(헬스 레이디스)은 몸살, 박은선(로시안카)은 발목 부상, 전가을(현대제철) 중앙리, 심서연(대교) 발목 등 선수들이 줄줄이 부상을 당하거나 몸 상태가 처진 점도 우려를 낳겼다.

윤 감독은 "결과는 아쉽지만 선수들이 강한 상대와 만나 좋은 경험을 쌓았다"며 의미를 찾았다. 박은선이 여전히 케 컨디션이 아니고 전가을

과 심서연은 부상 때문에 이번 훈련에 소집되지 못했지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윤 감독은 "박은선은 키프로스컵 때보다 몸 상태는 올라온 듯하다. 쉽게 몸 상태가 오르고 있지 않지만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전가을은 조금씩 뛰기 시작한 수준이고 심서연은 지난 주 봤을 때 기스를 했지만 많이 좋아졌다. 두 선수는 5일엔 소집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번 훈련에는 지소연, 박은선을 비롯해 여민지(스포츠토토), 정설빈·유영아(이상 현대제철)가 호출받았다. 수비수 황보람(대교)과 미드필더 강유미(KSPPO)는 오랜만에 대표팀에 들었고 손윤희(KSPPO)는 처음으로 발탁되는 등 새 얼굴도 눈에 띄었다.

이날은 지소연을 제외한 22명이 입소했다. 지소연은 팀 일정 때문에 다음 달 4일에야 합류한다.

윤 감독은 "체력 조건은 좋은 러시아에 빠른 공수전환에 주안점을 두고 맞서겠다. 집중력과 체력을 올려 실점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러시아와의 평가전 후 해산되는 대표팀은 5월 8일 재차 소집되고 20일 미국으로 전지훈련을 떠난다. 6월 4일 캐나다에 입성해 10일 브라질과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를 벌인다. /연합뉴스

'호수의 여왕'도 코리언?

내일밤 시즌 첫 메이저대회 ANA인스퍼레이션 개막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맹활약하는 한국여자골프들이 2015 시즌 첫 메이저대회에서 상승세를 이어간다.

지난 30일 끝난 KIA 클래식 우승은 미국의 베테랑 크리스티 커에게 내렸지만 막강 전력의 한국여자골프 군단의 실력은 4월 2일(현지시간) 개막하는 메이저대회 ANA 인스퍼레이션(총상금 250만 달러·우승 상금 37만5000달러)까지 삼킬 기세다.

이 대회는 지난해까지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던 시즌 첫 메이저대회다.

일본항공사인 ANA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으면서 대회 이름이 바뀌었지만 대회 장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의 미션 힐스 컨트리 클럽 다이나 쇼어 토너먼트 코스(파72·6769야드)로 변함없다.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은 2004년 박지은(은퇴)이 처음 우승한 이후 2012년 유선영(29·JDX), 2013년 박인비(27·KB금융그룹)가 챔피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에도 112명의 출전 선수 중 한국 국적의 선수만도 20명이 넘는다. 이번 시즌 우승컵을 차

지한 박인비부터 최나연(28·SK텔레콤), 김효주(20·롯데), 김세영(22·미래에셋), 양희영(26)이 모두 대회에 나선다.

'판언니' 박세리(38·하나금융그룹)도 지난주 KIA 클래식 3라운드에서 코스 레코드 타이 기록(64타)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노린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강자들에게도 이번 대회가 미국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다. 전인지(21·하이트진료)와 허윤경(25·SBI저축은행)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인지는 3월 10일자 세계랭킹 기준 30위 이내, 허윤경은 2014 KLPGA 상금 랭킹 2위의 자격으로 출전권을 얻었다.

한국 선수들에게 밀려 우승을 놓친 스테이시 루이스를 비롯해 KIA 클래식 우승으로 재기를 알린 크리스티 커 등 미국 선수들도 메이저 우승으로 자신감을 세우기 위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